

##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?

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 건강  
자녀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 
‘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’에 대해 알아보아요.

### 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란?

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파악하여  
학생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  
교육부에서 매년 전국의 모든 학교(초등학교 1,4학년,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)를  
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죠.

- ✓ 믿을 만한 검사인지
- ✓ 꼭 필요한 검사인지

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 
‘Q&A를 통해 풀어볼까요?’

### Q&A 큐!

#### Q.1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

▶ 인지·정서·사회성발달 과정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**빠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**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ADHD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소아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며 잘 치료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남기죠. 검사를 통해 **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.**

학교 담당교사의 상담을 거쳐, 위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층평가가 진행됩니다. 심층평가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.

#### Q.2 검사는 아이의 취약한 점만 부각시켜주나요?

▶ **아닙니다.** 2017년도부터 자녀의 **성격적 강점**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역이 추가되었어요.  
자녀가 **자신의 강점을 알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**가 됩니다.

그리고 초·중·고로 이어지는 자녀의 정서 행동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발견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해주는 데 참고가 됩니다.

**Q.3** 검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학생부나 건강기록부에 남나요?

▶ **아닙니다.**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상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, 학생부나 건강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습니다.  
**절대 학교생활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**

**Q.4** 검사 결과가 ‘관심군’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가요?

▶ **그렇지 않습니다.** 일반적으로 **전체 아동 청소년의 10~20%**가 정서 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정서·행동특성검사는 총점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 관심군으로 선정합니다.  
‘관심군’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‘정신질환’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, 다만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가정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 
**반드시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.**

**Q.5**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작성하나요?

▶ **초등학생의 경우**

자기 객관화가 어려울 수 있어서, 부모님의 관찰에 따른 검사에 의해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. **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의 부모님께서** 온라인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.  
(온라인 검사가 어려우시면 사정에 따라 서면 검사 후 학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)

▶ **중·고등학생의 경우**

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**학생이 직접** 온라인을 통해 설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**Q.6** 검사 결과에 대해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?

- ① 성격 특성 영역의 결과에 대해 자녀의 성격적 강점을 칭찬해주세요.
- ②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잘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.
- ③ 기분을 이해하고 싶고 어려움이 생기면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.

자녀의 정서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.

*차근차근 성장하는 자녀의 마음  
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를 통해  
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세요.*

**2019년 4월 부귀중학교장**

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했습니다.